

# 광주시교육감 측 금품수수 의혹 제기

### 시민단체 “배우자, 한유총 광주 임원과 고급호텔서 식사” 수사외뢰 검토

### 시교육청 “자체조사 결과 사실무근...다분히 의도성 있어” 법적 대응 시사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측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외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음해성 의도가 있다면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교육감의 배우자가 지방선거 직후 한 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임원을 만나 식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사한 장소가 1인당 3만 원이 넘는 고급호텔인 점을 감안했을 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사의 금지에 관한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수사외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유총 광주지부 임원들의 단체 대화방에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장 교육감의 배우자가 광주지부 임원들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휘국 ‘교육감이 사립유치

원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전화로 전해왔다’는 내용도 카톡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참여자치21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한유총 광주지회 전임 간부가 장 교육감에게 건넨다는 이유로 돈을 건넸다는 제보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엔 광주시교육청은 유치원 감사에 대한 불만 등이 얽힌 음해성 의혹 제

기로 보고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장 교육감의 부인이 호텔에서 한유총 광주지회 임원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했지만 기소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응할 가치가 없어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처럼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것을 보면 다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조형물에 발길질하는 시민단체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구석 수사를 촉구하며 조형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서울대 ‘표절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본조사 착수

### 최대 4개월간 본조사

### “강의신청 후안무치”

서울대학교가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본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서울대와 광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 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지난 4일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연구진실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 착수를 결정했다. 본조사는 최대 120일간 실시할 수 있다.

광상도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조 전 장관이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으며, 서울대는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본조사 착수 결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년 1학기 강의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9월 2020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했다.

## 검찰 “금품·가짜뉴스 불법선전 중점 단속”

### 총선 앞두고 경찰·선관위 대책회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 선거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 서부지검은 12일 오전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공동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선거 등 ‘3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선거사범의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 때까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은 중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에 대해선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이 선관위 고발 전 검찰에 정보와 기초자료를 제공해 검찰이 증거를 먼저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한 상태”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뉴스1

## 주행 중 어린이집 통학 차량 화재...안전 대피

12일 오전 8시25분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불이 났다.

통학 차량 운전 중이던 운전자가 계기판 아래 부분에서 불꽃을 발견,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켰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다행히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인솔교사, 어린이 2명은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 5·18당시 전남도청 점거 60대, 39년만에 무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60대가 39년 만에 무죄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소모 및 계엄법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A씨(61)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진행된 반정부 시민궐기대회장에 참석하고, 전남도청을 점거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는 1980년 10월24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판결받았다. 이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검사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동기과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과 관련된 행위와 이 때를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씨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말했다.

## 친구와 채무문제 다투다 불지르려한 50대女

친구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깝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10시2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남 목포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구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화가나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SUV 차량 음식점 돌진...유리창 파손

12일 오후 1시13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A씨(50·여)가 몰던 SUV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유리창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손님이 없어 부상자는 없었다. A씨는 목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